

벤처 관련 정책

● **벤처확인제도 개선 및 지자체 벤처투자 허용**

앞으로는 벤처확인을 위해 불필요한 보증·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사 등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보증·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도 벤처확인을 위해 보증·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의 벤처확인제도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의 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 확인요건의 개선 및 관리 강화

벤처투자를 받은 시점에서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투자유지기간 6개월 규정을 폐지하였고, 보증·대출이 필요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대출결정금액을 부여하여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확인요건 완화에 따른 위장투자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요건 상의 6개월 제한규정을 폐지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증·대출이 곤란한 창업 중인 기업에 대해서 보증·대출 금액 및 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허용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공사 및 공익법인 등에 한해서만 출자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상의 출자제한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백운만 벤처정책과장은 "이번 벤처특별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보증·대출로 인한 벤처기업의 부담이 감소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안으로 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 경에 시행될 예정이다.

● **중기청, 하반기 벤처투자로드쇼 개최**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과 한국벤처투자(주)(대표이사 김형기)는 지난 9월 22일 열렸던 충청·강원권 로드쇼에 이어 하반기 벤처투자로드쇼를 전북, 경남지역 순으로 매월 1회(총 3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벤처투자로드쇼는 상반기 미개최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며, 지방 벤처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벤처캐피탈사 등이 대거 참여하여 지방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투자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청 김영태 벤처투자과장은 "상반기 4회에 걸친 벤처투자로드쇼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에게 이미 131억 원의 벤처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는 중"이라며, "벤처투자로드쇼를 기회로 지방 중소기업의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제고되어 벤처투자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중기청, 8대 산업, 50개 전략제품, 117개 중소기업형 유망녹색기술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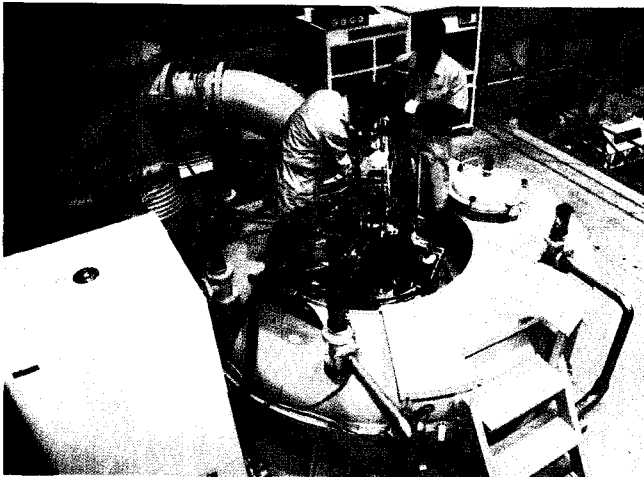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녹색산업 분야의 핵심인 부품·소재 R&D와 생산을 담당할 녹색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중소기업형 유망 녹색기술'을 발굴·공표하였다.

금번 제시한 녹색기술은 그동안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를 비롯한 관련 산·학·연 각계 전문가와의 6개월 간의 심층 토의과정을 거쳐 수립되었다. 기존 국가 전체적인 '녹색기술로드맵'을 토대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단기 상용화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전략적 육성 필요성이 큰 8개 산업분야, 50개 전략제품, 117개 유망녹색기술이 제시되어 있다.

'유망녹색기술' 발굴은 중소기업 녹색성장 확산전략의 핵심인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녹색산업분야 전문 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중장기 R&D 지원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국내 녹색산업을 성장동력화 하려면, 녹색제품의 기술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부품·소재의 수입을 대체할 국산기술의 육성이 필수인데, 이를 담당할 녹색 중소기업은 여건이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금번 분야별 유망 녹색기술 정보는 중소기업들의 녹색기술 이해도와 전략적 녹색기술 기획력을 향상시켜 녹색 고부가가치 유망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원자력연구원, 세계 유일의 원심분무 기술로 만든 U-Mo 분말 벨기에 수출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양명승)은 세계 유일의 독창적 원심분무 기술로 제조한 연구용 원자로(이하 연구로)용 U-Mo(우라늄-몰리브덴 합금) 핵연료 분말 7kg을 벨기에 원자력연구센터(SCK·CEN)에 수출했다. 세계 핵연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프랑스, 미국, 아르헨티나에 이어 벨기에에도 원심분무 분말을 수출함으로써, 원심분무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SCK·CEN은 운영 중인 연구로 BR-2에 사용할 차세대 연구로 핵연료 개발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급한 분말을 원료로 핵연료 완제품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연구로에서의 성능 및 안전성을 시험 평가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자체 기술로 봉 형태의 연구용 원자로 제조기술을 국산화, 2007년 12월 운영 중인 하나로 핵연료에 100% 국산 핵연료를 장전하는 등 연구용 핵연료 국산화에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수출용 판상 핵연료 기술 개발에 적용할 경우 분말 수출보다 10배의 높은 경제적 가치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 KRISS, 초정밀 표준신호발생기 구축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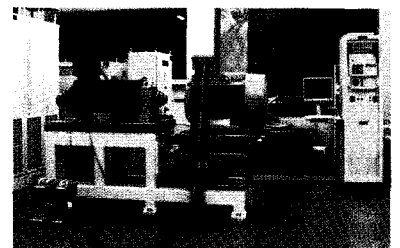
KRISS(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김명수) 미래융합기술부 나노양자표준연구단 정연욱 박사팀은 기존의 상용 표준 신호 발생기 보다 100배 이상 깨끗하고 정확한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정밀 표준 신호 발생장치 구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구축한 시스템은 100 mV급 출력의 저전압에서 표준 신호를 발생하며, 고주파 기술과 극저온 기술, 초전도 물성기술, 물리학 원천기술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다양한 첨단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이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정 박사팀은 초전도 소자인 조셉슨소자를 활용해 표준신호를 발생시키는 기기 구축에 성공했다. 아날로그 신호를 합성할 수 있는 파형발생기를 구축해 정확한 표준 신호를 만든 것이다. 조셉슨 접합소자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펄스는 양자역학의 법칙에 의해서 물리학의 기초상수인 플랑크상수와 전자의 전하량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디지털 신호 자체가 양자역학적으로 정확한 0과 1의 펄스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잡음이 없는 순수한 신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조셉슨 접합은 두 개의 초전도체를 절연물질 사이에 두고 연결시키는 것으로, 전압이 높아지면 절연물질이 사이에 있어도 초전도체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원리를 말한다. 조셉슨 접합소자는 슈퍼 컴퓨터용 초고속 회로소자로 기존의 비례연산속도 및 소비전력 등에서 뛰어나다.

◎ 한국전기연구원, 최저효율제 위한 고효율전동기 공인 인증시험설비 구축

한국전기연구원(원장 윤탤훈)은 최근 지식경제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전력산업인프라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200kW급 이하 고효율전동기 공인 인증시험설비 구축' 사업 (2008. 07. 01 ~ 2010. 06. 30)을 통해 1차년도 사업으로 37kW 이상 200kW 이하 2, 4, 6, 8급 고효율전동기 효율시험이 가능한 200kW급 다이내모미터 시스템을 구축, 최저효율제를 위한 공인 인증시험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기연구원(이하 KERI)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이미 고효율전동기 인정을 받고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시험을 신청 받아 새로 구축된 설비를 이용하여 사후관리 성능평가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최저효율제는 지난 2008년 7월 1일 부로 37kW 초과 200kW 이하의 2, 4, 6 급 저압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2010년 1월 1일 부터는 그 2단계로 0.75kW 이상 37kW 이하 중소용량 전동기에 대해서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자치단체

◎ 2009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

충청권 3개 시·도(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충청북도((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가 주관하는 '2009 충청권 벤처프라자' 행사가 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8회째인 이번 행사는 10월 7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 동안 진행되며, 개막식에는 충청권 3개 시·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및 의원, 향우회장, 벤처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본 행사에는 충청권 72개 우수·벤처기업들이 전기·전자관/바이오·식품관/환경·에너지관/기계·부품관/창업보육관 등 5개 업종관으로 참가하며, 국가 신성장동력인 녹색기술을 선도할 LED 기술에서부터 바이오의약품에 이르는 다양한 우수벤처기술과 제품들이 전시되어 제품의 우수성과 첨단 기술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 경북도, 해외자문위원 추천 우수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실시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세계화,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 등 세계 45개 국 104명의 해외자문위원을 위촉, 해외시장개척과 해외투자 유치,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21일 개최한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협의회 총회와 병행해서 해외자문위원 중 기업을 운영하거나 친분관계가 돈독하고 경북제품구매에 관심이 많은 우수바이어를 직접 발굴한 후 초청했다. 또한 다음날 열린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수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수출상담회에 참가했던 바이어는 일본, 터키, 리비아,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 21개 업체 31명으로 이들의 관심품목은 LED제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IT&전기, 컴퓨터, 농기계, 섬유기계, 일반기계류, 그리고 인삼 등 건강·미용제품 및 가정용 제품이다. 이에 경상북도는 무역 관련기관인 경북통상(주)와 협조하여 바이어가 찾는 관내 상담 유망 중소기업체 100여 개 업체를 찾아 수출상담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상담에서 인도네시아 등에서 참여한 바이어는 현장에서 25만 불 상담을 계약키로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수출성과로 이어졌다.

이행권

◎ 경남은행·거창군, 승강기밸리 입주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경남은행이 거창승강기밸리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지난 9월 22일, 거창군과 '거창승강기밸리(거창승강기산업단지) 입주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거창승강기밸리 입주기업에 원활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경남은행은 거창승강기밸리 입주기업들에 대한 금융 우대지원과 함께 금융자문과 금융주선업무 등의 금융서비스를 약속했다. 경남은행 문동성 은행장은 "거창승강기밸리가 성공적으로 조성되

면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국가 선진화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거창승강기밸리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행장은 "거창승강기밸리 입주기업들이 보호·육성될 수 있도록 거창군과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부분의 걸친 업무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거창승강기밸리는 총 사업비 1,400억 원을 들여 거창군 남상면 일대(116만㎡)에 조성예정인 '승강기 집적화 단지'로, 승강기 제작에 필요한 부품생산산업단지화 연구개발을 위한 R&D센터, 인재육성을 위한 한국승강기대학 및 전문연수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규제 개선 돕는다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용로)은 기업호민관실(기업호민관 이민화)과 공동으로 불필요한 중소기업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용로 기업은행장과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지난 9월 2일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 조사 및 해결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연구 기획 과제 공동 연구 △국내시설의 상호 활용 △정보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과제를 공동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호민관은 전국에 걸친 규제 발굴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고 규제 발굴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은행은 고객의 소리를 정부기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업현장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영업점 현장 대출창구를 통한 발굴 시스템과 함께 피드백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해 외 기 술

● 노키아 지멘스, LTE 모바일 기술 이용한 첫 통화 성공

노키아 지멘스 네트워크가 4세대 LTE(Long Term Evolution)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통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통화 시험은 독일에 있는 노키아 지멘스의 연구개발팀이 주도했으며, 기존 이동통신 기지국과 표준 기술을 이용해 진행됐다고 알려진다. 노키아 지멘스는 상용 서비스 환경에서 실제로 운용될 수 있는 LTE 기술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대부분의 빠른 통신장비 기업들은 향후 도입될 예정인 4세대(4G) 기술인 LTE 장비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통신장비 기업들은 LTE 장비를 출시해 통신사들의 신규 시장 수요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노키아 지멘스는 LTE 서비스가 올 연말에 처음 시작돼 내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음악과 영화 등의 콘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4세대 모바일 브로드밴드 기술인 LTE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 페이스북, 음성 통화 제공 앞뒤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조만간 음성 통화 기능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음성채팅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 비복스(Vivox)가 음성통화 기능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보이스채널’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들은 보이스채널을 통해 3명 이상이 동시에 통화할 수 있으며, 얼마 후에는 비복스 플러그인을 설치하면 페이스북 회원이 아닌 사람과도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이다.

보이스채널은 개인적인 목적뿐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도 널리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에 계정을 만든 기업의 직원들은 고객 관리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회의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페이스북은 일부에게만 베타서비스를 개시했고, 정식 서비스는 오는 4분기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다.